취임 3년차 '선명상' 등 주요 종책 뒷받침

진우 스님, 기관장에 '책임감' 강조
소임자들 "불교 위상 강화 진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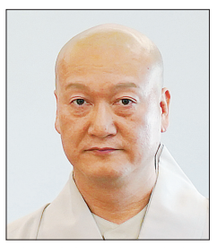

사서실장 남전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


한국문화연수원장 자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기를 1년여 남기고 단행한 대규모 인사의 기조를 '종단 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이후 집행부의 업무 집중력을 높여 선명상 대중화 등 주요 종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우 스님은 특히 신임 부실장들에게 "종무행정을 빠르게 파악해 업무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하기관장들에게는 책임감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독립된 기관으로 책임감이 막중하겠지만 스스로가 '총무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국불교 중흥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임 부실장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이어 종단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종상 스님을 은사로 1981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불국사선원 등에서 수행 정진하며 65안거 이상을 성만했다. 대승사, 각화사, 보경사, 흥국사 주지를 지냈으며 조계종 법규위원회 법규위원,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죽림사 주지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법등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도리사·학도암 주지를 지냈다. 현재 연화사 주지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중선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사미계)했다. 포교원 포교부 신도국장을 역임했으며, 울산경남지역 전법단 지도법사로 활동했다. 현재 용궁사 주지다.

교육부장 유정 스님은 성오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사미계)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운수사 주지를 역임했다.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 미래본부 사무총장,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약천사 주지를 지냈다. 현재 정수사 주지다.

사회부장 진성 스님은 혜산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사미계)했다. 내소사 봉래선원 등에서 수행 정진하며 20안거 이상을 성만했다. 내소사 주지를 역임했다.

사서실장 남전 스님은 세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총무부 총무국장, 기획실 기획국장, 포교원 및 총무원 포교부장을 역임했다. 정혜사, 안양사 주지를 역임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재무부장, 사서실장,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보리사, 옥련암, 옥천암 등에서 주지를 지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95년 수계(사미계)했다. 부석사 봉황선원 등에서 수행 정진하며 15안거 이상을 성만했다. 유석사, 영주포교당, 서악사, 봉정사 주지를 지냈으며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대원사 주지이며, 제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청학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사미계)했다. 황련사 주지를 지냈고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제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은 일관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사서실 종책특별보좌관(문화특보), 문화부장,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용암사 주지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보선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수계(사미계)했다. 상원사 청량선원 등에서 25안거 이상을 성만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기획실 감사국장, 호법부 호법국장,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강진 무위사 주지다.

한국문화연수원장 자공 스님은 일각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조사국장, 호법국장,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만연사와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를 지냈다.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
"항고 취하·감사 수용"

조계종 중앙종회의 '총림 해제'로 촉발된 동화사 사태와 관련해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이 가처분 항고를 취하하고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8월 19일 회의를 열어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의 입장을 청취했다.

회의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혜정 스님은 감사 거부와 관련해 "연기를 요청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응이 맞다"며 참회하고 감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혜정 스님의 입장 청취 후 "총무원장 스님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9월 1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징계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김내영 기자

진각종, 제59기 회당장학금 수여식
8월 19일 진각문화전승원서

진각종이 신교도 자녀 대학생 45명에게 회당장학금을 전달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8월 19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진기 79(2025)년 제59기 회당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통리원장 능원 정사(회당장학회 이사장)는 장학증서 전달 후 "하루 3분이라도 진언명상으로 지혜를 얻으면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

회당장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부처님의 은혜를 지혜로써 깨달아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진각행자로서 본분인 희사와 염송으로 지혜를 밝힐 것"을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김준혁 의원 "조계종, '금강산 종' 반환에 관심을"

일제에 의해 중국으로 반출
인천시립박물관 종과 '교환'
"남북관계 개선 물꼬" 기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반출된 '금강산 종' 환수에 종단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8월 1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금강산 종'의 역사적 의미와 환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강산 종'은 고려 말 태조 왕건의 금강산 참배를 기념해 원나라 기황후가 조성했다. 〈유점사본말사지〉에도 1346년 자정원사 강금강이 원나라 황제의 명으로 종을 주조해 내금강 배점 고개 위에 종각을 짓고 종을 안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금강산 종'은 1906년 일본 조동종 아베 스님에 의해 중국으로 반출돼 현재는 중국 대련 여순박물관 1층 로비에 전시 중이다. 범종 중 규모가 크고 종신(鐘身)에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져 있는 등 예술적 가치가 높아 중국 국가 1급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8월 19일 진우 스님을 예방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이 반출한 '금강산 종'.

김 의원은 환수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소장한 중국 범종과 '금강산 종'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금강산 종'과 인천시립박물관의 원·명·청 시대 범종 중 1점을 교환함으로써 중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고, '금강산 종'은 원래 자리인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계종도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금강산 종'이 환지본처 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가 될 수 있겠다"며 "오는 10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니 중국 불교 측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